

아이돌그룹 생존 전략 '개별활동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입력 2009. 7. 3. 08:49 · 수정 2009. 7. 3. 08:49







[뉴스엔 김형우 기자]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점차 필수 코스가 되고 있다.최근들어 국내 아이돌 그룹들에게 개별 활동은 당연히 거쳐야하는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룹 활동 후 개별 활동을 벌인 뒤 다시 그룹으로 뭉친다'라는 공식이 일반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더욱이 개별 활동을 통해 멤버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휘, 자신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1석2조 효과를 내고 있다. 또 타 장르 도전으로 새로운 팬층이 형성, 유입되면서 그룹 자체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내 대부분 아이돌 그룹들은 개별 활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로 받아들이는 추세다.

13인조 슈퍼주니어는 이와 같은 개별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대표적 그룹. 김희철은 연기로, 강인은 DJ로 나서며 자칫 대규모 그룹이 겪을 수 있는 낮은 멤버 인지도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유닛 활동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슈퍼주니어의 값어

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개별 활동을 통해 멤버들의 끼를 최대한 방출시킨다는 소속사의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국내최고아이돌로 평가받는 동방신기 역시 마찬가지 범주다. 일본 활동으로 인해 개별 활동이 미진했던 동방신기는 시아준수가 CF 프로젝트그룹 애니밴드로 활동해 가능성을 타진했고 영웅재중도 한일 합작 드라마 촬영을 마친 상태다. 동방신기의 그룹 파워가 개별 멤버들의 파워와 맞물려 더욱 큰 폭발력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메이저에 데뷔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룬 빅뱅 역시 올 한해 개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리더 지드래곤을 시작으로 태양 대성이 각각 올 하반기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탑(TOP)과 승리 역시 연기자로 나서며 입지를 확실히 다질 각오다. 일본 활동으로 인한 공백을 솔로 활동으로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S501도 개별 활동을 통해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김현중이 KBS 2TV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대박을 쳤으며 박정민도 뮤지컬로 연기자 도전에 합격점을 받았다. 허영생 김규종 김형준 역시 가수와 DJ를 오가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이 오히려 SS501이란 그룹의 위치를 격상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송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는 이미 성공적인 개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아가 KBS 1TV '너는 내 운명' MBC '신데렐라맨'에 출연, 차세대 여자연기자로서 각광을 받은 것은 물론 태연이 DJ로 활약, 방송가의 극찬을 받고 있다. 이외의 멤버들도 솔로곡, 예능 프로그램들에 진출해 호성적을 거둬 소녀시대를 국내 최고 걸그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아이돌 그룹들이 개별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수명이 짧을 수 밖에 없다. 또 이미지 변신이 그리 쉽지 않다"면서 "이런 맹점들을 개별 활동으로 인해 해소하고 있다. 예전엔 개별 활동이 그룹 활동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이라고 밝혔다.

(사진=(위로부터)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
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